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앞으로 나가길”

에브리데이교회, 최홍주 원로목사 손창민 담임목사 이취임 예배

에브리데이교회(손창민 목사)가 최홍주 원로목사, 손창민 담임목사 이취임 감사예배를 10일 오후 3시 30분에 드렸다.

이날 예배는 본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이임식에 이어 취임식이 성대히 진행됐다.

설교를 한 김재문 목사(사랑의빛선교회 원로목사)는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로서 첫째로 서로 중보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 두 번째로 서로 이해하기에 힘써야 하고 세 번째로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언어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마지막으로 먼저 죽어야 한다.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적은 것은 자아가 살아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축원한다”고 했다.

축사를 한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는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한 것처럼 믿음을 지키신 원로 목사께 축하를 드린다”면서 “후임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정말 힘든 것인데 이를 행하였고, 바울의 믿음의 역사가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던 것처럼, 손창민 목사님이 믿음을 전수해서 에브리데이교회가 더 큰 부흥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손창민 목사와 사모 ©기독일보

했다. 이어 축사를 한 서정인 대표(컴패션)는 “최홍주 목사님이 항상 컴패션 사역에 앞장 서고, (컴패션에) 지원을 하는 어느 누가 예수님과 가까워졌다고 증거하고, 많은 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중보하며 신이 나서 말해준 것이 기억이 남는다”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이 늘 있지만 온 교인이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고 마땅히 달려올

길을 걸어오셨다”고 말했다.

고별사를 한 최홍주 원로목사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감사와 행복이었다. 감동과 눈물의 예배 시간, 아름다운 본관 건축 완성 등 이런 큰 은혜를 받아도 되는가 싶었다”면서 “간곡한 부탁은, 지금까지 저를 섬겨주고 믿고 따라 주었던 것 같이 손 목사

님과 그렇게 가주시기를 바란다. 과거와 저와 비교하지 마시고 손 목사님을 따라주시기를 바란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져야 한다. 성도님들을 사랑한다”고 했다.

이어 진행된 담임 목사 취임식에서 축사를 한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는 “제가 앞에서 기도하고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최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셨다. 어려움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그동안 에브리데이교회를 빛나게 만드셨다”라면서, “손창민 목사님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실력이 대단한 것을 보게 된다. 앞으로 여러분이 최 목사님에게 하신 것같이 섬겨주시면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고 했다.

손창민 목사는 “성경에서 광야의 기간을 주시는 대표적인 이유는 낮추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잘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다”면서 “물론 두려움이 있지만 기대가 많이 된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고 시행착오를 겪을 텐데,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최홍주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린다”고 답사를 전했다.

토마스 멩 기자

美 미시시피 142개 교회, 동성애 분열로 UMC 탈퇴

미국 미시시피 주의 142개 교회가 2019년 이후 동성애에 대한 입장 차이로 분열 중인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UMC)를 탈퇴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UMC 미시시피 연회는 지난 9일(현지 시간) 잭슨 앤더슨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소집 총회에서 주의 142개 회원 교회의 탈퇴를 승인했다.

이번에 탈퇴한 잭슨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Christ United Methodist Church)는 미시시피 주에서 가장 큰 교회로, 지난 10월 자체 투표에서 찬성 717표, 반대 112표로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 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명칭을 ‘그리스도 연합 - 잭슨’(Christ United - Jackson)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샤프 루이스 미시시피 연회 감독은 탈퇴 투표를 승인하며, 개별 교회에 대한 투표 결과는 추후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이스 감독은 결과 발표 직후 연설에서 “박수를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장내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는 “아직도 민감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변화의 길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미시시피 연회는 189개 회원 교회의 탈퇴 결정을 승인하는 투표를 진행했는데, 이는 지역 연회의 약 5분의 1에 해당했다.

UMC 장정은 동성 결혼의 축복과 동성애자 성직 임명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UMC 내 많은 진보적인 지도자들이 이러한 규칙을 거부하자 많은 보수 교회들의 탈퇴로 이어졌다. 2019년 UMC 총회는 특별 회의에서 교단 장정에 2553조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동성애 논쟁으로 인해 교회들이 UMC를 탈퇴할 수 있는 임시 절차이며, 올해 말에 만료된다.

UM 뉴스에 따르면, 2019년 이후 2553조에 따라 탈퇴한 교회의 수는 지난달에 7000 개를 넘어섰으며, 올해에만 5000개 이상의 교회가 UMC와 결별했다.



2023년 12월 9일, 미국 미시시피주 잭슨에 위치한 앤더슨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UMC 미시시피 연회 소집총회. ©UMC 미시시피 연회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시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부터 Payment)
 ◎전기로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기쁘다 구주오셨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큰나무 교회
 THE GREAT TREE CHURCH

예배시간 안내
 주일1부 예배 오전 9시
 주일2부 예배 오전 11시
 GT Youth 예배 오전 10시 45분
 금요복합집회(금)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
 Website: http://www.thegreattree.org/
 3114 Old Denton Rd, Carrollton, TX 75007
T. 972-904-3509

크렌셔장로교회 임직식 및 장로 은퇴식

크렌셔장로교회(한현종 목사)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주일예배에서 안수집사 임직식 및 장로 은퇴식을 가졌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한일서 5:13)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한현종 목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기 바란다. 영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 영생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한다”라면서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생각해 보기 바라고, 이 대립절 기간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한다”고 했다.

이날 김유철, 최성원 집사가 안수집사로 임직했고, 조영철 장로가 은퇴했다. 한현종 목사는 “그동안 장로님이 교회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서 많은 일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생의 확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크렌셔장로교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주일예배에서 안수집사 임직식 및 장로 은퇴식을 가졌다. ©기독교일보

리고 천국에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희생의 모습으로 보이셨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면서 “임직하는 집사님들이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이 있다. 조용철 장로님같이 영

생은 소유한 자처럼, 이웃을 좀 더 챙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모습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 아름답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는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남가주 교계 성탄 맞이 행사

▶러빙워십과 제이어스의 연합 콘서트 예수아(YESHUA)가 12/17(주일)에 오후 7시 LA 다운타운에 노보 극장(Novo Theater)과 22(금)/23(토) 오후 7시 Anaheim Grove National Theater에서 열린다. Loving Worship은 Loving Jesus Worship의 줄임말로 세리토스를 중심으로 집회와 크리스천 미디어 사역을 통해 복음의 열정을 되살리려 노력하는 초교파 선교단체이며, J-US 미니스트리는 2010년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의 기도 모임으로 시작되어 찬양과 정기 예배, 제자 훈련 등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단체이다.

▶ANC온누리교회는 12/15(금) 오후 7:45에 분당에서 키즈윙크(어린이 주일 학교) 크리스마스 뮤지컬 Straight Outta Bethlehem을 개최한다.

12/16(토) 9:00에는 열두광주리 캠페인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된다. 현장 전달식은 1차 선정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2차선정기관은 해당기관으로 12월중에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LA 챔버 콰이어 콘서트 (Los Angeles Chamber Choir) 2023 겨울 정기 연주회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요한 세반스찬 바흐”가 12월 16일(토) 오후 7시, Glendale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열린다. 지휘 이정욱, 소프라노 이영주, 등이 참가한다. 주소: 134 N. Kenwood St. Glendale 91206, 티켓 문의:김희영 권사(213-361-9305)

▶세리토스선교교회(방상용 목사)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온가족이 함께 하는 성탄 축하의 밤(Christmas Performance)을 12월 17일(주일) 오후 4시에 연다.

▶‘A Small Art exhibition for Christmas’ 주제의 전시회가 2일(토)~23일까지 부에나팍에 있는 AJL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폴 아트리 등 12명의 크리스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토랜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에서 TFPC성탄축제가 오는 12월 22일(금) 오후7시 30분에 분당에서 한다.

▶스토리가 있는 찬양 콘서트 “Night & Light”가 오는 22일(금) 오후 7시 세계 등대교회 분당에서 열린다. 유명 찬양 사역자이자 성악가인 캐더린 조(Catheryn Jo)가 참가한다. 주소: 1479 E. Broadway, Glendale, CA 91205

▶한길교회는 12/23 7시에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 연주회를 연다. Festival Church choir, 한길교회 챔버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김도희, 알토 정희숙, 테너 오정록이 참여, 율임상 교수가 지휘를 맡았다.

김진홍 목사, “500년 만에 신학의 주류 창세기로 바뀌어”

창립 2주년을 맞아 부에나팍교회는 12월 4일부터 7일(월~목)까지 김진홍 목사(두레마을 대표)를 초청해 말씀 잔치를 개최했다. 사경회 첫째 날(12/4) 김진홍 목사는 창세기를 두 차례에 걸쳐 강의했다. 첫 번째 강의에서 김 목사는 창세기의 구조를 설명하고 500년 만에 일어난 신학의 흐름의 변화, 창세기에 나오는 7가지의 시작에 대해 전했다.

“창세기는 전편, 후편으로 갈라진다. 전편은 1~11장, 후편은 12~50장, 전편과 후편은 완전히 다른 책이다. 1장~11장까지 한 권, 12~50장까지 한 권,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으니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506년 째이다. 500년간 신학의 주류는 출애굽기였다. 500년 만에 신학의 주류가 창세기로 바뀌었다. 바뀐 이유는, 개신교뿐 아니라, 기독교에는 세 종단이 합쳐져서 기독교이다.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 그리고 개신교이다. 가톨릭, 동방정교, 개신교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했다.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한 구원 신학- 민족적인 사건인데 영적인 의미가 있다. 죄의 심판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방되었다. 출애굽기 신학을 영적 해방의 신학이라고 한다. 500년 동안 이 흐름으로 지내오다가 30년 전부터, 지구 생태계가 혼란해지면서 출애굽기의 구원신학에서 창세기의 창조신학으로 바뀐 것이다. 구원 신학에서 창조 신학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다른 말로, 생태신학. 하나님의 창조질서-생태계의 위협에 빠지니 창조신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요약한 책이다. 히



김진홍 목사가 창립 2주년을 맞아 말씀 잔치를 준비한 부에나팍 교회에서 사경회를 인도했다. ©Youtube screen shot

브리어 성경에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한다. 하늘들, 복수이다. 그들의 사고 방식에 하늘이 세 가지-첫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 둘째 하늘은 온 우주,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가 있었다. 레이먼드 무디라는 정신과 의사의 <사후생, Life After Life>라는 책이 있다. 그는 철학교수였다가 나중에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하는데 의사가 사망진단을 했는데 며칠 뒤에 깨어난 경우가 몇 년에 한 번씩 꼭 있었다. 무디는 각 대학 의과대학에 편지를 보내 150명의 전세계 임상 체험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들의 체험에 유사한 공통점이 발견됐다고 한다. 임상체험한 이들은 알콜 중독자, 마약 중독자였다면 중독을 끊었고, 둘째, 자기 발로 교회나 성당을 찾아가고 셋째, 기회만 있

으면 가난한 이에게 베풀었다.” “창세기에는 일곱 가지 시작이 언급된다. 우주의 시작, 생명의 시작, 사람의 시작, 가정의 시작, 죄의 시작, 심판의 시작, 그리고 일곱번째는 구원 역사의 시작 (창 12:1 - 구약사, Holy History)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역사의 클라이맥스가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사건이다. 12장 1절부터 구약사가 시작된다.” 김 목사는 이날 두 번째 강의에서 타락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아벨을 살해한 가인을 향한 질문에 담긴 함의를 설명한 후, 197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다 투옥되었던 경험, 청계천에서 도시빈민 선교에 몸담았던 경험 등을 나누며 창세기 후반부 믿음의 열조들의 삶을 풀어 나갔다. 주디 한 기자

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오라토리오 메시아 연주회

이번 연주회는 커뮤니티와 다민족 이웃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전하기 위해 지역교회들이 연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무료 성탄 메시아 연주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휘자 윤임상



소프라노 김도희



알토 정희숙



테너 오정록



베이스 David Castillo

2023.12.23 SAT 7 PM

한길교회 THE WAY CHURCH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323-735-0200 | www.churchtheway.com

남가주밀알선교단, 40여명에 대통령봉사상 시상

남가주밀알선교단이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교실에서 봉사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자원봉사상 시상식을 지난 9일(토)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진행했다.

올해는 금상 11명, 은상 18명, 동상 9명, 그리고 CONGRESSIONAL AWARD 4명 등 총 42명의 학생들에게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의원이 서명한 봉사상이 수여됐다.

사랑의교실은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수업료 및 기타 부대비용이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0년 8월 5일 남가주 OC 지역에서 처음 시작되어 현재 전 세계 밀알선교단이 세워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핵심 사역으로 자리 잡아, 발달장애인들의 재활과 교육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미주밀알선교단 산하 15개 지단, 3개 지소에서도 사랑교실



밀알 대통령 자원봉사상 시상식

을 통해 수많은 발달장애 참가자들과 교사, 봉사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을 나누고 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현재 OC, LA, 동부 LA, Irvine, Torrance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교실이 열리고 있고,

Santa Fe Springs에 위치한 밀알 사무실에서는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교실이 매주 진행되고 있다. 김민선 기자

2023년 목회에 몇점을 주겠는가



사우스베이목사회 기도가 12월 6일(수) 서부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사우스베이 목사회(회장 고창현 목사)가 6일(수) 서부장로교회(김진주 목사)에서 2023년 마지막 기도로 모였다. 이날 기도회에서 사우스베이 목사회 목회자들은 2023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없는 은혜를 묵상하고 사우스베이 지역 복음화와 교회의 연합을 위해 기도했다.

김진주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기도는 김우준 목사(토렌스 조은교회)가 대표 기도하고 고창현 목사가 고전 4:1-5절을 본문으로 '2023년을 마무리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고목사는 "2023년 목회를 돌아보며 평가한다면 스스로에게 몇점을 줄 수 있을까. 우리 목회에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는 어려서부터 평가 받고 평가하는 문화에 너무 익숙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집착하고 이로 인해 주눅이 들어 있다. 이런 자아상을 갖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 없이 주변의 말과 판단에 영향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이런 판단은 나에게 있어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했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런 저런 무리들이 그를 판단했으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판단이나 평가에 자유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가 받는 인생이지 다른 사람에 의해 판단 받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내 인생에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도 안 된다. 바울은 자기가 함부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도 않았다.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삶과 목회를 판단할 수 없다.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자녀삼아 주셨음을 기억하자. 천국은 목회의 결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다. 2023년에도 부족함에도 나를 사용해주셔서 감사하자. 힘들었던 순간, 감사했던 순간, 기뻐했던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복음안에서 스스로에게

청소년들이 뽑은 2023년 올해의 영웅



한인 청소년들이 뽑은 2023년 올해의 영웅과 전설 (Heroes and Legends)

한인 2세대들이 참여하고 있는 '영웅과 전설 (Heroes and Legends)'은 올해 두 번째로 총 11명의 한인들을 "2023년 한인 사회 모범 인물"로 선정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제작했다. 지난 일년간 청소년들이 매주 모여 토론하고 의논하고 직접 히어로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각자 맡은 히어로의 글을 썼다.

이들이 뽑은 올해 한인 커뮤니티의 '영웅과 전설'은 락바 미술관에 수 많은 그림을 기증한 비행기 조정사의 전설인 체스터 장 박사, 정소현 작가, 테디 최 박사, UDLA의 창립자 루벤 허난테스, CJ ENM America 회장 엔젤라 킬로엔, 선교사 글로리아 김, HAPA Day 창립자 티아 레고스키, 전 LA 소방국 부국장 에일 맥, 전 3가 초등학교 교장 수지 오 박사, 한국어진흥재단 이사

장 모니카 류, KBS 원로 아나운서 위진록. 프로젝트를 총괄한 크리스토퍼 이 감독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한인 2세대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알아가는 뿌리 교육과 현장 교육을 함께 하면서 또한 이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영웅들은 본인들의 자리를 지켜가며 돈과 명예가 아닌 뒤에서 진심으로 우리 청소년들과 사회를 위해 앞장서는 그런 히어로와 레전들을 발굴하고 기록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청소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이 책은 개인소장은 물론 각 주요대학교와 도서관에 보낼 예정이고 돌아오는 2024년 1월 20일에 히어로 모두 초대되어 Book Signing과 리셉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장소 미정. 김민선 기자

부족했지만 잘 버텼다고 애썼다고 말해 주자"고 말했다

이어 고창현 목사의 인도로 '사우스베이 지역 복음화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2024년에도 서로의 교회를 축복하는 목사

회 위해, 이스라엘 하마스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지역의 평화를 위해' 각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예배는 윤 목사(한인 소망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김민선 기자

Pyeonggi Hills Hyundai SUPER STORE

NEW 2024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0%

APR Financing
60개월까지 할부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Months

NEW 2024 HYUNDAI Tucson Hybrid SEL AWD

NEW 2024 HYUNDAI Kona SEL

NEW 2023 HYUNDAI Santa Fe SEL

Lease Special

NEW 2024 HYUNDAI Ioniq 5 SE RWD

10,000 mile/year
For 24 Months
\$8,995 due at lease signing

NEW 2024 HYUNDAI Ioniq 6 SE RWD

\$7,500 Lease Cash Available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부에나팍 교회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지난 주 4일~10일을 감사 주간으로 정하여 커뮤니티와 함께 말씀과 찬양 및 의료 봉사로 감사를 나누는 부에나팍 교회(김성남 목사)는 12월 10일 오전 11시 감사예배를 드렸다. “예수님이라는 뿌리에서 결실을 이루는 교회”(사 11:1-5)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김성남 목사는, 2주년을 준비하며 힘들었던 것이, 주변 사람들의 선부른 판단이었다며, 하나님께서 부에나팍교회에 주신 사명에 대해 말했다.

“피로사회라는 책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있는 소중한 가치를 내던지고 자꾸 남의 것을 갖고 비교하니 피로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요새는 긍정적인 말을 해도 피로하다. 긍정이 과잉되었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무리 칭찬해도 믿지 않는다. 왜? 영혼이 없는 칭찬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2주년 행사를 준비할 때, ‘너희 교회는 환경이 안된다.’ ‘너희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용기를 주셨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앞으로의 비전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도 사람들은 무척 피로했다. 북이스라엘



지난 주 4일~10일을 감사 주간으로 정하여 커뮤니티와 함께 말씀과 찬양 및 의료 봉사로 감사를 나누는 부에나팍 교회(김성남 목사)는 12월 10일 오전 11시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독교일보

과 아랍 연합군이 합세해서 유다를 침공해 오니 극도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주길 간절히 기다렸다. 어떤 상황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가슴에 있다면 내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은 맞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가정을 이 정도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하는 상황이 찾아 올 수 있다. 2주년 잔치를 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

다. 그럼에도 2주년을 준비하는 스태프들에게 접촉사고부터 해서 각종 어려움이 많았다. 그럴 때 마다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간절히 말걸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볼 수 있다.”

김 목사는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라는 말에 근거해, 케노시스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사야 11:1은 이사야 전체의 핵심이다. 다윗은 왕권을 누렸지만 그의 아버지 이새는 촌동네 목자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교회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다.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출발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소망을 갖고 출발을 같이 하자. 이새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촌동네에서 시작했다. 메시아가 연약하고 불품 없는 곳에서 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랐다. 예수님의 시작이, 왕궁이 아니라 짐승의 구유였다. 우리 모두 주목 받지 못한 구석에서 시작했다. 갈릴리 지역은 멸시를 받던 지역이었고, 예수님이 만나던 사람들도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고 주목 받지 못한 삶이었다.

예수님의 출발은 저희 교회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

김 목사는 2년 동안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 건물 이 도대체 어떤 건물이냐’였으며, 한번은 건너편 시크교도들이 찾아와 파킹랏을 빌려 달라고 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그 이후 “파킹랏이 채워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된 것이다. 성탄절 예화 한 가지가 있다. 어떤 집에서 가족이 TV를 보면서 난로에 불을 켜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새가 추워서 툭툭 부리로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문을 열어줘도 새가 들어오지 않았다. 새가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내가 새가 되어서 그 새에게 가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저희들에게 오신 것이다. 아무리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려 해도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김 목사는 부에나팍 교회가 나아가야 할 여섯가지 비전을 전하며 설교를 마무리했다. 주디 한 기자

미주 장신 피터 정 코치 “누구보다 잘 들어 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

[지난호에 이어서] 그동안에 코칭 선교사라는 단어가 없었다. 코칭은 철저하게 가정과 교회와 직장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전문인 선교사로 훈련하고 있다. 코칭 선교사를 4세대 선교사라고 한다. 직장에 있다가 길거리 나가면 주님 만민은 사람들이 많다. 지역의 불신자들을 뒤로하고 오지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코칭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이다.

코칭 선교사들에게 탁월한 대화 능력이 있다. 예전에는 마켓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교회 다니세요’라는 방식으로 했는데, 코칭 선교사는 그렇게 접근 안 한다. 먼저 들어주고 관계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먼저

들어주고 질문은 중간 중간에 하면서 자기 삶을 바라보고 ‘다시 교회 가야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도와주고, 그들에게 이미 주었던 은혜들을 상기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런 질문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하도록 대화를 이끈다.

그들만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것. 그게 뭐냐면 경청이다. 그렇게 선교사들을 훈련한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 자체가 경청이다.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데, 저는 복음의 통로가 열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이끌어 낸다. ‘그동안 어

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러면 ‘가끔 술 먹고 친구 만나고, 다른 방법 없었습니다. 가끔 잘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고 한다.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저보다 잘 들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입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분이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분과 대화해 보겠어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잘됩니다’ 이런 전도의 방식은 예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은 변했다.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한다. 이러한 전도방법은 전세대에 없고 미주

장신대 밖에 없다. 코칭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 가족을 살릴 수 있다. 남편 아이들을 살리고 본인 스스로가 살 수 있으니 성공하는 것이다. 코칭 2년 과정을 마치면서 ‘가정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고 간증을 많이 한다.

- 마지막으로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민교회는 위로가 필요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불확실한 사회에 긍정의 문화가 들어온다든지, 포용의 문화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회가 이민자들을 포용하기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 교회 자체도 살아가기에 힘든 모습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대안으로 크리스천 코칭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을 포용하고 회복시키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회복이 일어나기까지 가는 것이다. 상담하면서 끝에 물어본다.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민 와서 사업 실패하고 버림 받았나요?’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다음 스텝이 있음을 기대보자’라고 답해준다. 다음 스텝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코칭의 힘이다. 이민자들과 교회들에게 포용과 회복의 문화를 전해주는 것이 크리스천 코칭의 목표이다. 토마스 멩 기자

아버지 밤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Law

잠언 로펌

-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개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David Lee 변호사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무료 상담

(213)210-3651

Dlee@proverbs318law.com

◎ 센터메디컬그룹

최우수 등급
메디컬그룹

99세까지 88하게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

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메디컬 서비스의 시작

시니어만을 전문으로 운영되는
의료 서비스는 센터메디컬그룹이 유일합니다

1 시니어 전문 의료 네트워크

2,000명이 넘는 우수한 실력의
의사와 다양한 의료진!

2 남가주 최다 입원 가능 대형 병원

80여 곳이 넘는 병원들에서
편하게 수술 및 입원 치료!

3 초고속 당일 병원 허가서

미국에서 가장 빠른 리퍼럴
시스템과 승인절차!

4 무료 병원 라이드 서비스

한국인 기사 & 그룹 자체 차량으로
무료 셔틀 서비스 제공!

문의



714-980-3532



cipa@popmso.com

◎ 센터메디컬그룹

QR코드를 찍어주세요!
www.centeripa.com



미 대법원, 워싱턴 '동성애 전환 치료 금지법' 유지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워싱턴 주의 '동성애 전환 치료' 금지법에 대한 기독교 치료사의 항소를 기각해 법 효력을 유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1일(현지 시간) 오전 발표된 명령 목록에서 대법원은 '브라이언 팅글리 대 로버트 W. 퍼거슨 워싱턴 주 법무장관' 등의 사건 증명서 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이 결정에 보수 성향인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각각 별도의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토머스 대법관은 워싱턴 주가 법으로 "이 논쟁의 한 쪽을 침묵시켰다"고 주장했다. 토머스 대법관은 "내용이나 관점에 따라 발언을 제한하는 법은 추정적으로 위헌이며, 법이 주 이익에 부합하도록 좁게 맞추어졌다는 것을 주 정부가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주 법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점 및 내용 기반 차별이며, 추정적인 위헌"이라며 "주 정부는 이를 시행하기 전에 엄격한 검토를 거쳐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워싱턴 주지사 제이 인슬리는 동성애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상원법안 제5722호(Senate Bill 5722)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면허가 있는 치료사가 미성년자의 성적 지향

을 바꾸려는 치료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일명 '전환 치료' 또는 '회복 치료'라고 불리는 성 지향 변환 치료(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s therapy, SOCE)에는 개인의 동성애에 대한 성적 끌림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상담이 포함된다.

이 법은 종교 단체를 면제라고 명시했지만, 팅글리는 이 면제가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워싱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9월,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팅글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문은 로널드 M. 골드 판사에 의해 작성되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골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 정부는 단지 그 치료법들이(수술용) 메스가 아닌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도, 주 면허의 권한 하에서 시행되는 의료 치료의 안전성을 규제할 권한을 잃지 않는다"고 썼다.

또한 "워싱턴 주의 법은 치료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환 치료를 금지한다"며 "이 법은 종교 상담사의 실천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한 것 외에는 종교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Anna Sullivan/unsplash.com

지난 1월, 제9순회 항소법원은 이 소송에 대한 전체 법원 재심을 거부하기로 투표했다. 반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임명자인 디아무이드 F. 오스캐널린 판사는 이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판결에 "잘못된 추론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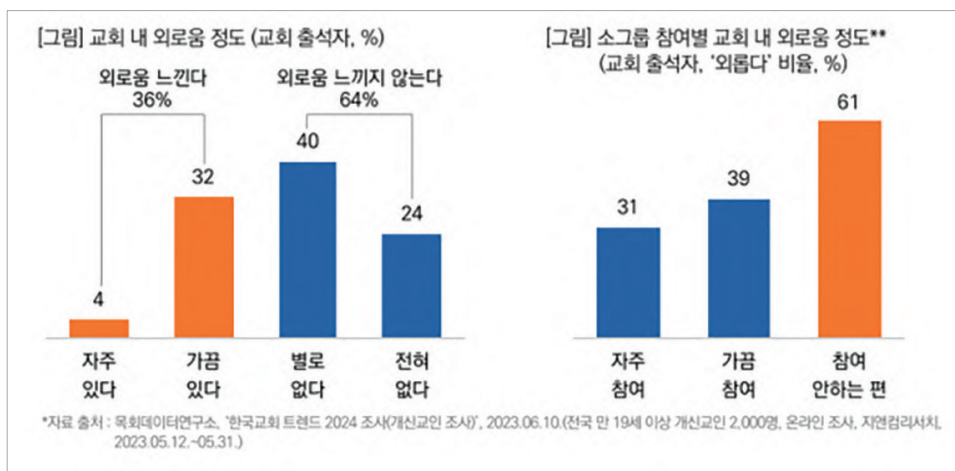
오스캐널린 판사는 "구속력 있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정헌법 제1조의 정밀한 검토 없이는 전부 언어로 이루어지는 전환 치료

를 금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판부는 말로 이루어지는 전환 치료가 직접적인 육체적 피해를 일으킬 것이라는 믿기 어려운 주장에 대해 증거를 인용하지 않았다"며 "정신적 피해를 주는 발언이 완전히 비언어적 행위로 간주되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유진 기자

교회 출석 3명 중 1명 이상, 교회에서 외로움 느낀다



©목회데이터연구소

교회 출석자 3명 중 1명 이상이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이하 목데연)는 지난 5월 개신교인 2천 명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 결과를 12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다(자주 4%+가끔 32%)'고 응답한 성도는 36%였다.

목데연은 특히 "주목할 점은 '소그룹 참여 안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성도의 교회 내 외로움 비율이 무려 61%로 '소그룹 자주 참여하는 편' 그룹의 2배에 달했다"며 "교회에서 소그룹을 적극 장려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인 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는지 묻는 결과, 가장 많은 46%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

기할 사람이 없을 때'를 꼽았다. 이어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때' 21%,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사람이 없을 때' 17%, '소속된 부서가 없을 때' 6% 등의 순이었다.

목데연은 "가족을 강조하는 설교 혹은 성경공부를 할 때'(5%)와 '부부끼리 모임 때'(3%)라고 응답한 성도도 10명 중 1명가량 있기에 1인 가구, 미혼자, 이혼/사별자 등을 배려한 모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응답자 대다수(83%)는 신앙 활동이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된다'(매우 31%+약간 52%)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별로 13%+ 전혀 4%)에 그쳤다. 특히 소그룹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신앙 활동이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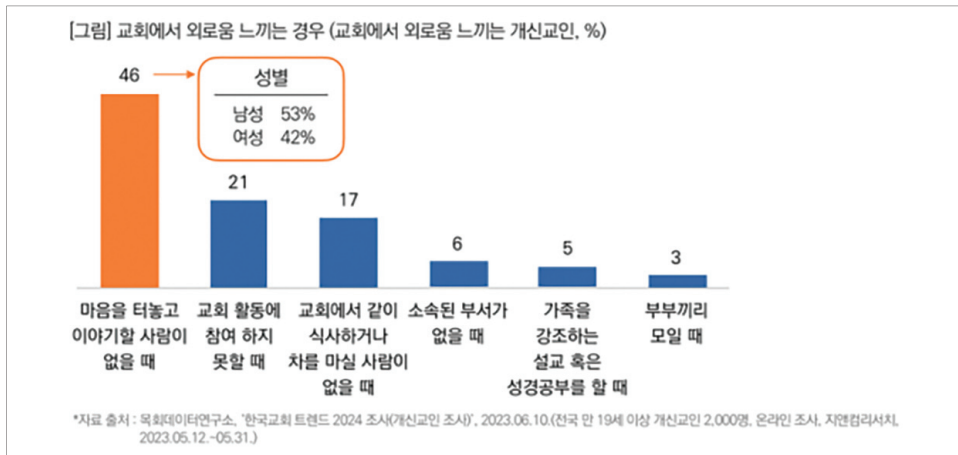
이 훨씬 높았다고 한다.

목데연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 3명 중 1명 이상이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교회 리더십들에게는 놀랄만한 결과"라며 "이같이 한 국교회는 외로운 신자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이어 "교인의 외로움에 대해 교회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우선 외로움을 대처할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된 성경적 가치관을 전해야 한다"며 "사회적 연결의 상실에서 오는 외로움을 세상이 제공하는 즐거움과 경제력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려는, 즉 신앙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목데연은 "그 다음으로 교회는 성도 간의 연결을 통해 서로의 영적 상태를 돌봐주고 중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키는 바로 '소그룹'"이라며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회적 관계(Sociality) 욕구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목데연은 "구약시대에서는 대표적인 약자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꼽았다. 이들이 모두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계층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외로움을 느끼는 현대인도 교회가 돌보아야 할 약자"라며 "교회가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외로운 사람들의 피난처(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처소)와 공동체의 위로가 있는) 안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 축복가득 말씀카드

다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뉴버전의 디자인은 끈이있는 말씀카드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디자인은 예전과 동일한 끈이 없는 인덱스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며 뉴버전의 디자인은 끈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EVENT

20% OFF

선 주문 할인 혜택

12월8일까지
주문고객을 위한
Special Deal

150개 ~~\$195~~ \$156

300개 ~~\$295~~ \$236

500개 ~~\$395~~ \$316

전화 및
온라인
주문 환영

20종류의 바탕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3.265.0244 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소중한 분들을 위한 따뜻한 선물

[연말연시 건강지킴이 귀생당]

정성과 마음을 가득 담은
귀한분들을 위한 건강지킴이 - 귀생당

한 해 동안 귀생당을 사랑해 주신 고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연말연시 귀생당 건강지킴이로 소중한 분들께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전해 보세요!



Special Price
**귀생당
당간신구**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 기능을 강화해서 당뇨와 합병증으로 부터 해방 되십시오!



Special Price
**귀생당
후코이단**

강력한 면역시스템 활성화로 항종양, 항궤양, 항바이러스 등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아이눈아이**

피로한 눈, 노안, 녹내장, 백내장 등 각종 눈질환 개선에 탁월합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후코이단 드링크**

후코이단 드링크 한 병당 함량을 5400mg으로 높여 인체에 더 빠르게 흡수되고 효능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동의비**

허준의 동의보감의 비방으로 6년간 홍삼과 녹용, 지황등 20여가지 신비의 약초가 한 일에 모두 함축되었습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홍삼100% 진생프레소**

오로지 6년간 홍삼만을 진하게 담아 면역력증진, 피로회복, 당뇨개선, 동맥경화, 황산화에 도움을 줍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홍삼+경옥고 홍력소**

6년간 홍삼에 경옥고가 더해져 면역력을 키워 떨어진 체력을 회복시키고 골다공증, 기억력을 회복해 줍니다.



Special Price
**귀생당
글루코사민**

천연 콘드로이친의 상어연골과 지느러미로 만들어 고통스럽고 오래가는 각종 관절염에 탁월하고 위장에 부담없는 글루코사민입니다.



www.kiseidousa.com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213.384.3333 / 800.909.0001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For to us,
a child is born.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6)



충현선교교회
홈페이지



충현선교교회
YouTube

충현선교교회 연말연시 예배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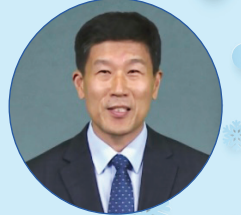
예배안내	12월 25일 (월)	11:00AM	크리스마스 한가족 예배
	12월 31일 (주일)	11:00PM	송구영신예배
	1월 2-6일 (월-토)	5:20AM	특별새벽기도회 (헤브론 경건훈련)



담임목사
국윤권
Rev. Kenny Kook

충현선교교회 2024 신년 부흥 집회 1월 4일(목) - 7일(주일)

주 제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벧전 2:9)		
집회일정	1월 4일 (목)	7:30PM	일의 의미 (왕상 3:4-15)
	1월 5일 (금)	7:30PM	환대 (창 1:26-28, 2:15)
	1월 6일 (토)	7:00PM	경계를 넘어 (요 4:27-42)
	1월 7일 (주일)	8:00AM, 9:40AM, 11:30AM	무지개 백성의 의미 (계 7:9-17)



강사
안건상 목사
(충신대학원 선교학 교수)

충현선교교회
CHOONG HYUN MISSION CHURCH

담임목사 국윤권 Rev. Kenny Kook 문의: 818-549-9191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www.choonghyun.org

기쁘다 구주 오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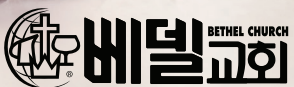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눅2:11-12)



김한요 목사
Rev. Bryan H. Kim, Lead Pastor

교회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일 1부 예배: 오전 7시 / 본당
- 주일 2부 예배: 오전 9시 / 본당
- 주일 3부 예배: 오전 11시 / 본당
- 주일 4부 청년 예배: 오후 2시 / 본당
- 주일 영어 예배: 오전 9시(1부), 11시(2부) / BGC 채플
- 주일 日本語 礼拝: 오후 1시 15분 / 임마누엘 채플
- 주중 새벽 기도회: 화-금 오전 5시 30분 / 본당
- 토요 험시바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본당
-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본당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Tel (949)854-4010 • Text-only: (949)229-1181
www.bkc.org • email: bethel@bkc.org • 수양관 (949)943-9697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예배	주일 오전 7:45
주일 2부 예배	주일 오전 9:45
주일 3부 예배	주일 오전 11:45
주일영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주일 교육부 예배	주일 오전 11:45
ON-U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1717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http://www.beautifulchurch.org/

“막힌 담을 허신 주님과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권준 목사 ©기독일보

동부사랑의교회(우영화 목사)가 17차 연 말특별새벽부흥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직 복음으로!’(에베소서 2: 1-10)란 제목으로 시애틀형제교회의 권준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권준 목사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 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모든 민족 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큰소리로 힘을 다해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 다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면서 “창

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 고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라고 하셨다. 우 리가 기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 짐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아 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나의 익숙한 삶을 벗 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 었어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 니라 세상의 사탄의 권세, 그 가치를 따라 살 아갔는데 그 결과는 사망이다”라면서 “그러 나 예수께서 밀바다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끌어 올리셔서 결국엔 예수님 옆에 앉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 게 하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목사는 “주를 위해 사역을 하 지만,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수 없고, 보 상 심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주 의 은혜에 감사하고 황송해서 하는 것이 사 역”이라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수님께 서 나를 보증하셨고 지켜주시고, 예수님 앞 은 자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했다.

권준 목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 는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이라면서 “우리도 하 나 됨을 이룰 수 있다면 때로는 우리도 십 자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구속 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그 일에 나를 택하 셔서 나도 때로는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했 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부사랑의교회 한분 한분이 복음의 영적 권세를, 입을 열어 선포 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기 바란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토록 영광의 자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 로 축원한다”고 말씀을 마쳤다.

토마스 멩 기자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신앙도서 독후감 시상식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의 정기총회 및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시상식이 12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미주 북음방송 애너하임 본사 공개홀에서 열렸다.

조명환 목사(크리스천위클리)의 사회로 시작한 1부 예배에서는, 이성우 목사(크리스천헤럴드 대표)가 대표로 기도했고, 설교는 민종기 목사(KCMUSA)가 설교했다. 민종기 목사는 ‘복된 좋은 소식의 파수꾼(이사야 52:7-12)’ 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독언론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민종기 목사는 “언론기관은 제 4의 권력”이라 할만큼 영향력 이 큰 기관만큼, 예수님이 ‘말씀’ 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해 주신 것 처럼, 기독언론도 언어의 칼을 예리하게 갈아 서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바르게 전할 수 있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1부 예배를 마치 며 서종천 목사(크리스천투데이 발행인) 축도 를 맡았다.

2부에서는 윤우경 본부장(크리스천헤럴드 총괄본부장)의 사회로, 제 9회 신앙도서 독후 감 공모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성자 전도사가 (미주크리스천신문사 LA 지사장) “이번 공모 에는 총 29편이 최종심사에 올랐으며 남가주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의 정기총회 및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시상식이 12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에 미주북음방송 본사에 개최됐다. ©기독일보

뿐 아니라 미 동부, 캐나다, 브라질, 한국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의 참여와 관심에 큰 의 미가 있었다”고 도서 선정 방식 및 시상 과정 을 설명했다. 백승철 목사(문학평론가, 에피포 도예술인협회 대표)는 “올해 9회째 이르러 목 회자가 처음 수상자 명단에 올랐고, 가장 많 은 수상자를 냈다. 그만큼 질이 높아졌다는 것

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시상은 이영선 목사(미주북음방송 사장, 제25대 세기언 회장)가 직 접 꽃다발과 상패 등을 전했고 시상식에는 수 상자 총 8명 중 남가주 지역에 거주하는 5명이 시상식에 직접 참가했다.

우수상에 조진석 목사(주의길교회, CA), 임 보라 사모(북가주새누리교회, CA), 윤주미 성

도(베델교회, CA)가 선정됐고, 장려상에는 양 유나 집사(생수의강선교교회, CA), 임지영 집 사 (엘바인주교회, CA), 임은아 집사 (임마누 엘장로교회, CA), 구계자 사모 (뉴욕광영교 회, NY), 한미란 집사(가스펠교회, CA)가 뽑 혔다. 독후감 시상식에 이어 세기언 제26차 총 회가 열렸다. 먼저 지난 24, 25대 세기언 회장 직을 연임한 이영선 목사가 지난 회기 소회를 밝혔다. 이 목사는 “세기언이 더 확장하기 위 해 동부 지역을 시찰했다. 하지만 염려만 더 크게 늘었다. 남가주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 기 독언론 상황이 어렵더라. 세기언이 남가주에 만 머물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래도 이번 다음 회기 회장이 북가주에서 나와서 그나마 연결 고리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세기언은 이날 총회를 통해 제26대 회장으로 임승쾌 장로(크리스티안타임스 발행인)를 만 장일치로 선출했다. 세기언은 신임 임승쾌 회 장을 포함 제26회를 이끌 임원진으로 부회장에 조명환 크리스천위클리 발행인, 이성자 미 주크리스천신문 LA지사장, 이 영선 미주북음 방송 사장을, 서기에 윤우경 크리스천헤럴드 총괄본부장, 회계에 서인실 크리스찬투데이 사장을 선출했다. 김민선 기자

브라이언 휴스턴, 내년 온라인 교회로 복귀 선언

힐송교회 창립자 브라이언 휴스턴(Brian Houston·69) 목사가 2022년 글로벌 힐송교 회 담임직을 사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온라 인 사역으로 복귀할 것을 예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휴스 턴 목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 위터)에 최근 근황을 알리며, 그와 아내 바비

가 새로운 사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바비와 나는 2024년에 매주 온라인 사역과 교회를 시 작할 예정이다. 이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어 매우 흥분된다”고 말했다. 휴스턴 목사는 새 사역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휴스턴의 딸 로라 토가니발루와

남편 피터 노가니발루가 새 교회 개척 을 발표한 지 두 달여 만에 나왔다. 이 부부는 휴스턴 목사가 글로벌 담임직 에서 물러난 지 1년 만인 올해 5월, 힐송 청년 부 글로벌 담임직에서 물러났다.

휴스턴은 1999년 아버지 프랭크 휴스턴 목 사의 아동 성추행 은폐 혐의로 고발을 당해, 2021년 9월 힐송교회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이어 2022년 1월, 글로벌 힐송교회는 휴스턴

이 행사 고발을 앞두고 교회 이사직을 사임했 다고 발표했다. 당시 그는 어떠한 혐의도 부 인했고, 2022년 8월 호주 법원은 그에게 무죄 를 선고했다.

가레스 크리스토포 시드니 치안 판사는 휴 스텐이 당시 아버지가 브렛 쉰스톡을 학대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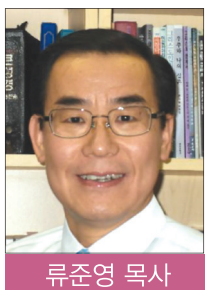
김유진 기자

축 성 탄



공적신학 실천센터

Center for Public Theology and Practice



류준영 목사

www.pubtheo.org
T.(310)738-0485



NKIA COLLABORATION

North Korean in America(엔키아 선교회)



Kim Young Koo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주소 및 전화

23425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다음세대 전도? Z+알파세대 언어를 이해해라”



©Helena Lopes/ Pexels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최근에 타니타 투알라 매독스(Tanita Tualla Maddox) 박사가 쓴 'Z세대와 알파세대'에 대한 장벽을 허물다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그는 칼럼에서 “우정은 한때 우리가 사는 지역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우리가 가진 전화번호나 우편 주소로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우정의 물리적 경계가 기술에 의해 초월되었다”며 “이 경험은 다음 세대의 Z세대와 알파세대가 잘 이해하고 있다.”

매독스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로 알려진 Z세대(1999~2013년 출생)는 스마트한 대화형 기술을 접하면서, 어릴 때부터 디지털 세계를 자신들의 세계에 통합하며 자라났다”며 “2018년에는 청소년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했으며, 이는 고유한 문화 규범, 기기, 에티켓, 언어 및 관계 역동성을 가진 디지털 세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셜 미디어는 디자인상 중독성이 있어 현실에 참여하기보다 끊임없이 스크롤 하는 것이 더 쉽다. 수많은 목소리가 Z세대와 알파세대를 꽉 들어차 있는데, 주변의 어른들은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듣고, 배우고, 선택하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며 “기성세대는 디지털과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해나 인식의 부족 때문에 뒤로 물러났으며, Z세대는 디지털 세계에서 스스로를 지키도록 방치되었다. 마치 모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선 “애들아, 너희들은 알아서 하거라”라

고 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불안, 외로움, 우울증, 자살 증거를 보고 있다고 했다. 매독스는 “이해했는가? 아이들은 자신의 장치에 맡겨진 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다음 세대가 있는 곳이 소셜미디어라면 이제는 어른들이 그 공간 속에 들어가 그들을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하고, 보살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노력의 “효과적이 되려면 관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다음 세대의 언어를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뜻한다.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닌 소셜 미디어에 좋아요를 누르고, 팔로우하거나, 댓글을 달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현실적인 우정과 멘토링의 디지털 문을 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2년 복음주의 여론조사기관 ‘바나’(Barna) 보고서를 인용하여 “Z세대의 약 4명 중 3명은 크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기성세대와 상의하고 싶어 한다. 멘토십(Mentorship)은 취업 기회를 찾을 때 다음 세대에게 항상 최우선 요소로 꼽힌다”며 “Z세대는 우리로부터 배우고 싶어 하며, 우리가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한다면, 번역가로서의 역할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매독스는 “그들의 세계에 진입하려면 먼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고려할 수 있다”며 “나와 기술 간의 관계는 어떤가? 나는 기술을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가? 건강한 관계와 기술의 한계는 무엇인가? 나는 현재 소셜 미디어의 동향을 알아가며 Z세대와 함께 기술과 관련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가?”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다음 세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하는 질문, 그 질문들의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지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문제를 다음 세대에게 이해하기 쉽고 매력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며 “Z세대를 알게 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미 항소법원, 예배당 총기 소지 금지법 시행 중단

미국 항소법원이 예배 장소에서 총기 등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뉴욕주 법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법의 시행을 막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8일 제2순회 항소법원은 뉴욕 주의 은닉소지개선법(CCIA)에 대한 여러 이의제기를 중심으로 한 4건의 사건에 대한 261페이지 분량의 의견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예배 장소에서의 무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원고들은 해당 법률(CCIA)이 그들의 성실한 종교적 실천에 부담을 준다고 충분히 주장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률이 “대중에 열려 있는 다양한 유형의 상점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사유 재산 소유자들이 재산 내에서 총기를 허용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면서, 예배 장소에는 동일한 자율성을 불허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이 법률은 (다른 명시된 민감한 장소들

과 함께) 예배 장소에 대해 대부분의 다른 개인 소유 사업체 및 자산과 다르게 적용되는 법률을 채택함으로써, 중립적이지도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뉴욕) 주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의 총기를 규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다른 재산 소유주들에게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 법은 종교 단체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가 총기 허가 여부를 (개인) 스스로 선택하는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증진시키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2년 7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CCIA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은닉 휴대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에게 “선량한 도덕적 성품”을 요구하며, 교회 보호구역과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의 은폐된 무기 소지를 범죄로 규정했다. 김유진 기자

West Hills 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Omyeong Han and church details.

Enhe and Pyeonggwang 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Gwangbin Kwak and church details.

Juwan 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Choi Heek and church details.

Chunghyun 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Guoon Guo and church details.

Naseong 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Yujung Lee and church details.

Gadina 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Yihaomin and church details.

Namgajubi 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Yihaeng Lee and church details.

Daehyang 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Gimjeong and church details.

Enhe 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Gimgyeong and church details.

Cornerstone 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Iijung and church details.

Torrence 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Gimjun and church details.

Torrence 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Gohaeng and church details.

Seritose 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Bangsang and church details.

CRPC Moreno Valley 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Yiwoo and church details.

Gamsahan 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Gubong and church details.

Dongshin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Baekwoo and church details.

Junim 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Jueok and church details.

Nulpurse 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Anchang and church details.

Doune 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Jiyang and church details.

Raguna 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Rimhuhun and church details.

Bethel 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Gimhan and church details.

Elbain 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Baeksin and church details.

Orenzi 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Namseung and church details.

Enhe 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Hanguk and church details.

Hamge 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Baekhoon and church details.

New Church advertisement featuring Pastor Huihun and church details.

기독교일보와 함께하는

축성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만남의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어린이부 오전 10:30 (교육관 1층)
 중고등부 오전 10:30 (교육관 2층)
 만남한국학교 오후 12:30~2: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산타모니카 한인 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김경렬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kyung.kim@biola.edu
 www.smkc.us

Dallas Baptist University
 Talbot Seminary
 Azusa Pacific University
 BA, MA, MDiv,
 DMin(candidate)

더 섬기는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후 12:30
 2부 예배 오후 3:00



김영일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부 장소 : 410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2부 장소 : 1620 E Chapman Ave, Fullerton, CA 92831
 T. (909) 975-1260

생명을 살리는 교회

라구나힐스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공동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하늘찬양대 주일/금요일 오전 10:00 / 오후 6:00
 중보기도회 목 오전 9:30



림학춘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4442 Moulton Pkw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http://www.lagunachurch.com

성탄예배: 12월 25일 오전 11:00 세례와 성찬식, 안수식
 새해새벽기도회: 2024년 1월 1일~1월 6일 오전 6:00

능히 할 수 있는 믿음 공동체 (막 9:23)

주향교회 JOOHYANG PRESBYTERIAN CHURCH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0:55
 수요 찬양예배 오후 7:30 (온라인)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김신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F. (213)383-5085
 info@joohyang.org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나성북부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 11:00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 7:30



유경재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강태광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

남북한 체제의 경쟁과 교회의 흥망대비

동족상잔의 6.25남침 전쟁 이후 남과 북은 동일하게 전 국토와 산업 시설의 파괴와 황폐화로 굶주림과 피폐한 상황을 극복해야 했다. 이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남과 북은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다. 김일성은 패전의 책임 전가와 정권 유지를 위한 처절한 권력 투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적들을 제거하는 피의 숙청을 감행했으며, 초도화된 북한 지역의 산업 시설과 경제재건 등의 모든 분야의 정상화를 위해 사력을 다 해야 했다.

남한 역시 거의 전 국토의 산업 시설의 파괴와 막대한 인명 손실과 요인들의 남북과 자진 월북으로 국가의 인재 공동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용공 세력들의 적결도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 이념적 문제로 부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전쟁고아 대책과 식량 증산을 위한 다급한 문제들도 있었다.

북한은 중국과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경제 원조와 자국 내의 재건 운동을 통해 극복해나갔다. 물론 신앙의 자유는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것보다 더욱 옥죄어졌으며 비공식 은밀한 예배도 더욱 어렵게 되었다. 김일성은 전후 복구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1958년부터는 북한 땅에 기독교가 존립할 수 없도록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실시하였다.

거기에 반해 남한은 미국의 식량 원조와 경제지원으로 전쟁의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그리스도인이었고 헌법에 명시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이북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도 교회 재건에 매진할 수 있어 남한의 교회는 크게 부흥될 수 있었다. 특히 남으로 피난 온 실향 이북 기독교인들은 천막 교회로 일어서기 시작하면서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교회가 개척되었다. 이 당시 정권의 권력층들과 사회 지도층들이 대부분 이북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었던 점도 교회의 부흥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말기에 부정선거로 1960년 4.19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이승만 정권도 무너졌다. 그 혼란기에 1961년 5월 16일 군부의 군사혁명이 발생하여 군부 정권이 들어섰고 새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로 선출된 군 출신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면서 부정부패와 용공 주의자들의 적결을 과감히 단행하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갔다. 특히 1965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대일청구권 배상금인 무무상의 8억 달러는 산업화 자금이 되어 발전의 마중물이 되었다.

1960년대에는 남과 북 사이에 체제와 경제와 국방 분야에 있어서 경쟁과 대립의 구도가 형성되었다. 여기에 북한의 김일성은 박정희와 경쟁적, 대립적 관계가 되었다. 김일성은 1912년 평양 출신 이었고 박정희는 1917년으로 경북 구미출신이었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청년기의 군 시절을 만주에서 보냈다. 김일성은 항일운동으로 박정희는 일본 사관학교의 생도의 신분이었다.

이러한 한반도의 분립된 정치적 구도는 성경 속에 남북 왕조로 갈라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경쟁 구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북 이스라엘 왕국은 에브라임지파를 비롯한 10지파와 넓은 영토와 토산물이 남유다보다 풍부하였다. 거기에 비해 남유다는 2개 지파에 불과했고 인구수도 적었으며 척박한 땅이 대부분이었다. 남한과 북한도 그와 비슷하였다. 이북 지역은 일제가 남겨놓은 각종 산업시설과 풍부한 지하자원과 전력 생산력이 높았기에 남한보다 산업적으로 매우 우세하였다.

그러나 남과 북의 경쟁 시대는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남한의 경제력이 월등히 북한을 앞서게 되었다. 특히 남한의 시장 경제 체제와 사유재산 제도와는 달리 북한은 재산의 국유화와 계획 경제와 군수산업 분야의 치중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남한의 경제에서 뒤처져 점차 그 경쟁 차이는 더욱 벌어졌고 국민의 소득 차는 비교 불가가 되었다.

클레멘트 제1 서신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신약 성경의 글들을 제외하면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서가 <클레멘트 제1 서신>이다. 저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이 문서는 로마의 클레멘트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를 위해 썼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로마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다. 로마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익명의 서신인데 당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교훈과 책망이 담겨 있다.

<클레멘트 제1 서신>은 고대 교회가 아주 귀하게 여긴 자료다. 시리아와 이집트 교회에서는 한동안 성경의 일부분으로 인정을 받았다. 오래된 교회 전통에 의하면 로마의 세 번째 감독이었던 클레멘트가 기록했던 문서라는 것이다. 학자들은 <클레멘트 제1 서신>이 주후 96년 혹은 97년에 기록된 문서로 보는데 큰 이견(異見)이 없다.

<클레멘트 제1 서신>은 초기 기독교 교회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담고 있다. 이 서신은 초대교회의 문제, 초대교회의 구조, 그리고 초대교회의 체제를 보여준다. 나아가 이 서신은 구약에 대한 초대교회의 이해, 신약에 대한 초대교회의 이해를 유추하게 하는 자료다. 아울러 이 서신은 초대교회 지도자의 범 교회적 리더십과 교회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속 사도 교부들은 문서와 자료를 통해 교회 간의 끈끈한 유대와 교회 지도자의 범교회적 지도력을 보여준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서머나의 폴리갑, 고린도의 디오니시우스 등은 자신들의 삶과 기록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범 교회적 리더십이 행사되었음을 보여준다. 범교회적 리더십이란 특정한 교회 지도자가 다른 교회 회중에게 권고와 훈계로 리더십을 보여준다.

이런 범 교회적 리더십이 행사된 대표적인 경우는 사도 바울이었다. 그는 바울 서신을 통하여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이나 자신이 관심을 가졌던 교회들에 영적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수형자가 되어 로마로 압송되던 이그나티우스가 6개 교회에 보낸 서신들은 사도바울을 닮은 모습이다. 이그나티우스는 각 교회 성도들에게 세세한 훈계와 조언을 보냈다. 범 교회적 지도력은 특정한 교회(모 교회)가 이웃 교회를 향한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한다. 폴리갑이나 이그나티우스 같은 지도력을 가진 감독이 있는 교회가 이웃 교회들을 지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클레멘트 제1 서신>은 로마 교회가 고린도 교회 내부 문제를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라고 간주하고 있다(63장).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 대표들을 파견하였다(65장).

이런 현상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보편 교회(Catholic Church)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각 지역 교회는 독립적이고 자치권이 있는 단일체로 이해하지 않았다. 교회들은 보편적인 교회의 부분으로 간주했다. 그들은 다른 교회 회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무관심하지 않았고, 아울러 자신의 교회 문제에 대한 이웃 교회 지도자나 이웃 교회의 간섭을 수용했었다.

<클레멘트 제 1서신>의 저자는 불확실하다. 이 서신이 로마 교회의 이름으로 쓰였으며 클레멘트의 이름은 없다. 그러나 교회는 처음부터 이 서신의 저자가 클레멘트라고 인정했다. 주후 170년에 고린도의 디오니시우스가 공식적으로 이 서신을 가리켜 클레멘트를 통해서 우리(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서신이며, 매주 주일마다 공적으로 낭독되었다고 밝힌다.

그러면 누가 이 클레멘트일까? 당시 클레멘트는 흔한 이름이었다. 초대교회에 클레멘트가 몇 사람 등장한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클레멘트가 누구인가를 설명을 시도했다. 먼저 오리겐이나 유세비우스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언급한 클레멘트라고 보았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지도자가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 은혜로운 추측으로 보는 것이 옳다.

둘째는 로마 정부의 유력한 집안에서 해방된 노예로 보는 경우다. 라이트푸트는 티투스 플라비우스

클레멘트(Titus Flavius Clement) 로마 집정관 가문의 해방된 노예가 <클레멘트 제1서신> 기록자라고 주장한다. 로마 집정관 티투스 플라비우스 클레멘트는 디온 카시우스 황제에 의해 무신론자(황제 숭배 거부자)로 처형당했는데, 그가 기독교 신앙 때문에 처형당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서론과 65장 502절로 구성된 이 서신은 비교적 긴 서신이다. 이 서신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분열이 계기가 되었다. 1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불화 때문에 주의 불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말한다. 문제는 과거 바울 시대에 고린도 교회 교회를 흔들었던 당파의 싸이 되살아 난 상황이었다. 3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 갈등은 고린도 교회 몇몇 젊은이들이 연장자들에게 대항했던 분쟁이다. 이런 갈등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저버린 일'이었고, 신앙에 대한 우둔함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경솔함을 나타낸 것'으로 3장에서 설명한다.

이 서신이 기록된 시기를 알아볼 수 있는 단서들이 있다. 본 서신 5장과 6장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언급되고 사도들이 장로로 임명한 인물들이 생존해 있는 그런 시대(44장)에 기록되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또 다른 재난이 있었다고 언급한다. 이 재난은 무도하고 변덕스러운 도미티아누스(Domitianus) 황제의 박해로 보는 것이 옳다.

이 서신의 저자는 구약에 정통했고 바울 서신도 충분히 이해했다. 빈번한 구약 인용(70인역)과 구약 인물의 행동에서 기독교적 신앙의 효능을 찾는다. 구약의 영웅들은 9장에서 예녹과 아브라함의 순종, 12장에서 기생 라합의 믿음과 환대, 18장에서 다윗의 충성과 순종을 언급하며 바른 신앙을 가질 것을 계속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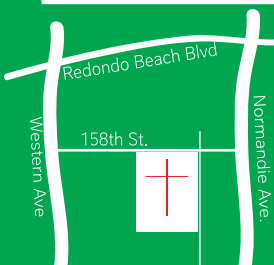
본 서신의 저자는 복음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것으로 보인다. 아주 기본적인 말씀만 인용하고 있다. 반면에 본 서신은 바울 서신을 자주 언급한다. 바울 서신중에서도 고린도 전서를 자주 언급하면서 과거 고린도 교회의 갈등을 반추하면서 현재 교회 갈등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동진 목사의 성탄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냥 잔잔한 호수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안의 온갖 공격적 감정, 무력하게 하는 감정, 포기와 낙심과 심지어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생각들을 향한 선전포고이며 마침내, 그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곤고한 인생들로 하여금 그 평안을 누리게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 성탄맞이 NOW 찬양모임 : 12/15(금) 오후 7:30
- Children Concert(The Well Church) : 12/17(Sun) 4:30pm
- 성탄 주일예배 : 12/24(주일) 오전 11:00
- 성탄축하 음악예배 : 12/24(주일) 오후 7:00
- 성탄, 삶의 예배 : 사랑의 BAG나눔(성탄/연말기간 홈리스들에게)



성화장로교회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www.sunghwachurch.org (213)447-3118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축성탄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1,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제임스킴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anoitingchurch.org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차권희 담임목사
놀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310)598-6878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kid@hanmail.net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신용석 담임목사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김명규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정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윤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장동훈 담임목사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임상훈 담임목사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정찬균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표희준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김성규 담임목사
주백성교회
3400 W. 6th St. Suite 202, Los Angeles, CA 90020
T. (818)633-1241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조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om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오홍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dsgc@gmail.com

김요한 담임목사
Global United Church
3333 Wilshire Blvd #325, LA, CA 90010
T. (213)221-9147 yohan72@gmail.com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진유철 칼럼

교회의 본질과 핵심을 붙들고 있는가?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오늘날 21세기는 넘쳐나는 정보 홍수 속에 다양한 분야의 관심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팔방미인' '다재 다능'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산만하게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고 이 일 저 일에 손을 대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가지에 탁월함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명한 '손흥민' 선수

가 노래도 잘 부르고 사진도 잘 찍고 음식도 잘하는데 축구 시합에 나가서는 진다고 가정한다면 다른 잘하는 것들이 칭찬들을 이끌어줄까요? 그런데 축구 시합에만 나가면 승리하는 선수가 노래도 잘 부르고 사진도 작가처럼 잘 찍고 요리도 잘한다면 다 칭찬 받을 일이 될 것입니다. 본질과 핵심이 강해져야 나머지도 돋보이게 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과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엡 1:23)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만물의 총만 이십니다. 또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엡 1:20)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합니다. 만약 열심히 교회생활 하면서도 번 아웃, 시험과 갈등, 미움과 분쟁에 빠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인데, 정확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먼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갈림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열심이 있었고 제일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문제는 예수님보다 자기 열심과 자기생각을 붙들었습니다.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예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롯 유다처럼 실패했음에도 회복되었는데,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들었더니 자신의 약함 속에서도 강한 은혜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헤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빌3:7-9)

마지막 시대의 세상은 예수님 이외에 붙들 수 있는 많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유익들, 명예나 직분, 자기의 업적과 공로 등 그러다보니 교회는 점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소망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거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분주하고 바쁜 연말연시가 될수록 더욱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김한요 칼럼

주님 오신 날, 오실 날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연말이 되면, 고마운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의 계절이라 12월은 더욱 감사가 넘칩니다. 교회 옆 야생 보호지역에서 페로 날아가는 새들이 저기 보

이는 골프장 너머 날아가는 모습도 감사의 마음을 실어 나르는 바쁜 모습입니다. 예배당으로 걸어 들어오는 좌우 꽃밭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해 있고, 본당 앞에도 반짝이는 트리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며 입장하는 성도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얼바인 대학의 학생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지난주 우리 교회 본당에서 공연을 하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엘 노엘' 등 캐럴 찬양과 함께 맑게 주님 오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바인 대학 교수들도 참여하면서, 학교 근처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면 다시 내년에도 이곳에서 하고 싶다는 말들을 남겼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얼바인에 있던 우리 교

회의 존재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지 200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연말의 분위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의 심방을 받고 고마워하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심방을 받은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해야 할까요?

저기 날아가는 새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기쁜 소식을 한보따리 들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는 소리가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

상 땅끝까지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율한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12월 프트머리에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유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어려웠고 힘들었던 한 해였다 해도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주안에서 힘내어 달려가십시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리-메리 크리스마스 할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송재호 칼럼

대강절의 촛불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대강절에 Advent란 단어는 '온다', '도착

한다' 를 의미하는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된 말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 전 네 번의 주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이 되면 본당 앞에 대강절 촛불을 준비하고 매주 한 개씩 점화하게 되는데 이 촛들은 보통 3개의 보라색 초와 1개의 핑크색 초로 구성됩니다.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기간이기에 빛을 상징하는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4개의 대강절 촛들은 각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의 초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의 초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셋째 주일의 초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이때 초의 색깔은 핑크입니다. 사랑에 빠진 젊은 신부의 얼굴이 기쁨으로 핑크빛 색깔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핑크 빛으로 물들게 하실 인생의 참기쁨을 주신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초는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해서 4주에 걸친 대강절을 지난 후 바로 초대 한가운데 있는 하얀 색깔의 초를 성탄절 야 크리스마스이브 예배 때 마지막으로

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Christ Candle, 그리스도의 초"입니다.

초를 하나씩 켜며 기념하는 대강절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강절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례 회교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기독교대학원,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인재로써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어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면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2023년
대박**



**100%
Made in
US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56% ~ 70%

연방 ITC : 30% 이상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3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SCAN ME



Lic#854389

*** 전기세 50~90% 절감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30~50%~~ **50~90% 절감효과**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최고 성능의 안정적인 패널**
- ✓ 모든 제품군 **최장기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최단기간 설치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

TALK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문의 전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마이 데몬> (下)

<마이 데몬>, 반기독교 성향의 한국식 비이성적 페미니즘

기독교 복음 신앙, 남녀평등 지지
좌파 권력 기생 한국식 페미니즘
기독교 신앙과는 양립할 수 없어
유럽 무비판 수입 한국 페미니즘

◆그리스도와 마귀: 그리스도와 마귀가 뒤섞인 기괴한 캐릭터 설정

드라마 <마이 데몬>은 인간들의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켜 주면서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가는 마귀 정구원(송강 분)의 이야기를 중심 서사로 삼고 있다.

설정이 진부하고 대사가 유치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화차가 진행될수록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성 시청자들의 취향을 잘 맞춘 덕분에 일정 수준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마이 데몬>은 마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인 만큼 곳곳에 성경 기사에 대한 레퍼런스가 등장하는데, 이 레퍼런스들은 성경 기사를 차용하는 방식에서 상당한 반기독교 성향을 드러낸다.

우선 마귀의 이름을 '구원'으로 명명한 점, 실제로 작중에서 마귀 정구원은 여주인공 도희(김유정 분)를 음모와 위기, 그리고 외로움으로부터 구해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이적을 마귀 정구원이 그대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콘스탄틴>에서 마귀 루시퍼(피터 스토메어)가 주인공 콘스탄틴(키아누 리브스 분)의 폐암을 고쳐주는 장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메시아>에서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적 그리스도 알 마시히(메디 데이비 분)가 총에 맞아 죽은 아이를 살리고 물 위를 걷는 이적을 선보이는 장면을 지목할 수 있다.

<콘스탄틴>과 <메시아>, 그리고 <마이 데몬>에 등장하는 마귀나 적그리스도의 이적 장면은 각각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르다. <콘스탄틴>은 인간의 영혼을 멸망에 빠뜨리기 위해 그리스도의 병고침을 따라하는 마귀의 집요함을 보여준다. <메시아>는 기독교 신앙이 사기꾼의 가짜 이적 몇 가지에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그리고 <마이 데몬>은 미모와 재력,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능력을 지닌 여성 앞에 마귀조차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여성우월주의 사상을 내세우기 위해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남성 마귀를 등장시킨다.

이로써 <마이 데몬>은 한국 좌파 세계관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남성혐오 기반의 페미니즘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남성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에 매우 적대적이라는 것을



마귀, 그리고 그 마귀에게 영혼을 판 이들의 이야기를 선보이는 드라마 <마이 데몬>.

배 악인들이고, 마귀 정구원은 이런 악인들을 능라하고 처단하는 가장 강력한 남성 캐릭터로 등장한다.

하지만 이 최강의 남성 캐릭터도 여자 주인공인 도희의 없이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도희는 여성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이다. 부, 미모, 능력 모두를 갖춘 젊은 여자로서 그 매력과 센스를 바탕으로 마귀마저 휘어잡는 모습을 선보인다. 이로써 <마이 데몬>은 정구원이라는 남성 캐릭터 안에 기독교의 그리스도와 마귀의 특성을 모두 뒤섞어 부여놓은 뒤 이 남성 캐릭터를 이상적인 여성 캐릭터에게 복종시키는 식으로 서사를 진행시킨다. 이런 서사전개 방식 속에는 여성의 갈망과 바램 앞에 남성은 물론 신앙조차도 굴복해야 한다는 극단적 여성우월주의 사상이 반영돼 있다. 20세기와 21세기 페미니즘의 사변적 기원은 프랑스의 페미니스트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의 무신론적 실존주의이다. 당연히게도 오늘날의 페미니즘 전체는 기독교회가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프랑스 실존주의는 공산주의와는 별개의 사상이지만, 기본적으로 전통의 해체를 통한 현실적인 자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좌파 사회주의 사상과 비슷한 목표를 추구한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실존주의 대가이자 보부아르와 계약 결혼을 했던 장-폴 사르트르는 생애 대부분을 공산주의와 함께했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의 선제타격에 의한 북침이라고 주장해 프랑스 사상계에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보부아르는 이런 사르트르와 평생 사상의 동반자로 지낸 인물로, 당연히게도 사르트르의 무신론적 실존주의에 영향을 받으면서 독자적인 페미니즘을 발전시켰다.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좌파 사회주의 사상과 현대 페미니즘 사상은 무신론이라는 사상적 공통점으로 엮여 있고, 따라서 정치적 협력 관계를 형성한다. 한국 좌파 권력이 여성운동 세력과 연합하는 것은 양측이 기독교를 비롯한 대다수 전통 종교에 대해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방송가는 소수의 보수 계열 인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진보좌파 성향 작가, PD, 배우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주의와 페미니즘을 편향적으로 옹호한다. SBS 같은 지상파 방송사에서 <마이 데몬> 같은 각본이 채택돼 드라마로 제작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와 마귀를 혼합시킨 남성 캐릭터를 등장시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뒤엎어 놓고, 이 남성 캐릭터가 출중한 여성 캐릭터에게 복종하는 서사를 통해 결국에는 남성과 종교, 양측을 모두 비하하고 희화화한다. 그리고 이는 진보좌파 방송인들의 취향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마이 데몬>은 페미니즘, 특히 사상의 깊이도 없이 맹목적으로 전통, 남성, 그리고 기독교를 적대시하며 좌파 권력에 기생하는 한국식 페미니즘이 기독교 신앙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신앙성경의 복음을 궁극적 기반으로 삼는 기독교 신앙은 원래 남녀평등을 지지한다. 19-20세기 미국의 여성계몽 운동과 여성 참정권 확보 투쟁은 거의 대부분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북미 대륙 기독교적 남녀평등 사상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유럽에서 무신론적 실존주의와 유럽식 페미니즘이 유입되면서 점차 좌경화됐다. 한국의 기형적 페미니즘은 국내 진보좌파 정치세력이 유럽식 페미니즘을 무비판적으로 수입하면서 자라난 것으로 학문적 깊이도 얕고 내적 논리도 빈약하다. 여기에 더해 여성의 비틀린 욕망과 비이성적 취향마저 삶의 기준으로 인정하면서, 이에 저해되는 모든 것에 적개심을 드러내는 비이성적인 특성을 보인다. 남성과의 공존을 거부하며 기존 질서와 전통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국내의 비이성적 페미니즘은 원래 한국의 사회질서에 부합하지도 않고, 기독교적 양성평등 사상과도 궤를 달리하는 비정상적인 좌익 포퓰리즘의 한 지류라고 볼 수 있다.

박욱주 박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거짓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이적을 선보이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메시아>.

작가의 반기독교적 의도가 드러난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을 때 보이셨던 이적, 즉 오랫동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어부에게 다가가 순식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신 이적을 정구원이 재현하는 장면에서 그리스도와 마귀의 위치를 제멋대로 뒤바꿔놓는 작가의 무질서한 상상력이 포착된다.

마귀나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이적을 모방하는 장면은 성경 기사를 핵심 모티프로 삼는 근래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렵지 않

보여준다. 실제로 <마이 데몬>의 최아일 작가는 이미 전작인 <철인왕후>에서 한국 페미니즘 진영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드라마 대사로 채택하면서 남성혐오와 관련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남성혐오와 여성우월주의가 혼합된 최아일 작가의 저급한 페미니즘은 <마이 데몬>에서도 지속적으로 표현된다.

◆여성과 마귀: 마귀마저 굴복시키는 이상적 여성의 이상화

<마이 데몬>에 등장하는 남성 캐릭터 대부분은 욕망은 넘쳐나지만 능력은 없는 소인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aga MEDICARE OPTION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신비의 침술, 놀라운 속담

Youtube에서 **김용석 원장**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치료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김용석 한의원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무극 보양탕을 체험해 보십시오.
LA 323.733.8814 OC 714.522.8818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초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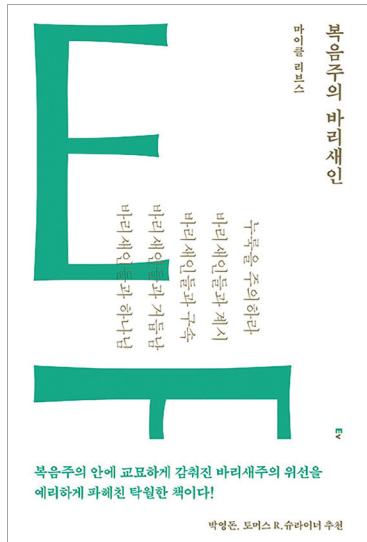
각종모임 주문현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미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복음주의 바리새인]

복음주의자는 왜 쉽게 바리새인이 되는가?



의미보다 중요해졌다.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아니라 옳아매고 결국 죽이는 종교로 변질됐다.

가장 심각한 폐해는 '교만'의 문제다. 방탕한 아들은 바닥을 쳤을 때 회심하여 아버지께 겸손히 돌아왔지만, 당당한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미워하며 절대 자신을 낮추려 하지 않았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뎌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높이는 자를 낮추신다. 복음주의자들은 안타깝게도 자주 스스로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저자 마이클 리브스는 교회사에 탁월한 조직 신학 박사이다. 런던 랭햄 플레이스에 있는 율소울스 교회 목회자이자 영국 유니언 신학교 총장이며, 전통 교리를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설명해 내는 데 탁월하다. 미국 복음주의 계열 교회나 목회자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복음주의 안에서 중요한 강연이나 컨퍼런스 강사로 자주 초대받기도 한다.

리브스는 "오늘날 교회에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을 진실하게 붙드는 삶"(gospel integrity)이라고 말한다(11쪽).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바른 복음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바리새주의는 복음의 본질보다 형식에 관심을 두게 만들고, 결국 노골적인 배교에 미치게 한다(12쪽). 주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누룩'이 오늘날 복음주의 안에 퍼지고 있다.

마이클 리브스는 <복음주의 바리새인>을 통해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의 실수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한다: ①그릇된 성경관 ②왜곡된 구원관 ③거듭남을 경시하는 태도. 저자는 이를 풀어서 '성경 안에 있는 성부 하나님의 계시, 복음 안에 있는 성자 하나님의 구속,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정리했다(21쪽). 저자는 특별히 복음의 삼위일체적 성격과 복음의 핵심 요소인 계시, 구속, 거듭남을 강조하는데, 이는 <복음의 사람들>에서 복음주의가 믿고 있는 핵심 교리로 설명된 바 있다. 이어서 리브스는 '바리새인들과 계시, 바리새인들과 구속, 바리새인들과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정리해 설명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을 통해 결국 율법주의 문제



©제임스 티소(James Tissot, 1836-1902)의 '화 있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Woe unto You, Scribes and Pharisees, 1886-1894).

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가의 문제임을 확실히 보여준다.

복음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주의가 비판받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니다. 자유주의가 기독교를 훨씬 병들게 하고 있지 않은가? 성경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정의하는 이 들보다는 그래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철저히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더 낫지 않은가?

하지만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고 저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라. 어쩌면 당신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관한 자신 혹은 누군가의 해석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는 성경이 가리키는 분이 아니라 성경책 자체를 신으로 모시고 있을 수도 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아무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는 교리에 동의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열심과 충성심을 은근히 뽐내고 있지 않은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자기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이 점점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하나님처럼 선하고 의롭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나치게 행위에 집착하면서 자기가 믿는 바를 남을 깔아뭉개면서까지 우기고 있는가?

언젠가 '이단'은 '끝이 다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예수님이 만나셨던 바리새인은 당시 많은 백성에게 존경받는 성경 교사였고, 모범적인 종교인이었다. 하지만 저자가 말한 '복음을

진실하게 붙드는 삶'에서 멀어졌을 때, 그 끝이 다른 것으로 예수님의 가장 큰 경고와 책망을 받는 이단이 되었다. 마이클 리브스의 <복음주의 바리새인>은 그런 면에서 성경을 사랑하고 그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붙들고 있는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음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복음의 놀라운 요소들을 진실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을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로 바꾸신 것처럼, 이 책을 통해 많은 독자가 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붙들게 되기를 기도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NEW 신앙도서

『고대 근동의 눈으로 구약의 하나님 보기』, 이상환. 도서출판학경, 2023년 12월 7일 -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통해 구약성경을 더 깊이 읽는다! 베스트셀러 『Re:성경을 읽다』의 저자, 미국 미드웨스턴 신학교 이상환 교수의 두 번째 책. 『기다림과 만남』, 정진호, 세움북스 | 2023년 12월 15일 -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통해 신학과 인문학의 눈으로 탐구하는 특별한 주기도문 해설서를 쓴 저자, 정진호 목사의 두 번째 책. 성경과 신학, 인문학을 통해 바라보는 기다림과 만남, 그리고 믿음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캐서린 캠벨 저 / 박상은 역 | 생명의말씀사 | 2023년 12월 11일 - 무너지고 깨어진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셨다고 느끼는가? 하나님은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알려하신다: '마태의 해' 복음서 설교』, 최주훈, 비아토르, 2023년 12월 11일 - 비유가 많고, 사건과 인물 안에 상징과 은유가 많은 마태복음으로 복음의 다양하고 풍요로운 지평을 보여 주는 교회력 설교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최상훈, 규장, 생명의 위협과 불안이 넘치는 아프리카에서도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알래스카에서도 상처와 외로움이 넘쳐나던 이민자들 속에서도 결국 정답은 기도였다!

복음주의 바리새인
마이클 리브스 | 송동민 역 |

복있는사람 | 168쪽 |

11,000원

"이 책은 위선이라는 치명적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 시대 교회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전이다."
박영돈, 토머스 R. 슈라이너 추천

이 책에서, 마이클 리브스는 신자들이 바리새주의를 떨쳐 내고 복음을 진실히 따르는 삶을 택하도록 돕는다. 리브스는 교회가 앓고 있는 바리새주의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 내적인 병폐들을 극복하여, 그리스도 중심의 참된 개혁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복음의 사람들: Gospel People>로 복음주의가 무엇인지 명쾌한 정의를 내린 마이클 리브스가 이번엔 <복음주의 바리새인: Evangelical Pharisees>이라는 책으로 복음주의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율법주의 문제를 제대로 다뤘다.

어떻게 성경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고 본문이 말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이들이 잘못될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자 리브스는 말한다. 예수님이 가장 무섭게 책망하신 이들도 그랬다. 영생을 얻고자 늘 성경을 상고했지만 영생의 주는 멀리했고, 율법을 사랑하여 그 구체적인 해석까지 철두철미하게 지키려 했으나, 어느새 유전과 전통이 성경의 본래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네 아들이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게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잠언 23:15, 16

My son, if your heart is wise, then my heart will be glad indeed; my inmost being will rejoice when your lips speak what is right.

PROVERBS 23:15, 16

2023. 12. 11. Y.H

축 성 탄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KOREA-AMERICA GENERAL ASSEMBLY

총회장 : 박문석 목사
부총회장 : 진건호 목사
총무 : 김선광 목사
부총무 : 이현욱 목사
서기 : 안선신 목사
부서기 : 서사라 목사
회록서기 : 조은혜 목사
회록부서기 : 김영일 목사
회계 : 안정희 목사
부회계 : 박춘해 권사

감사: 강성수 목사, 주재임 목사, 박정희 목사
남부노회장 : 김인철 목사
LA노회장 : 엘리야김 목사

교단가입문의 : (213) 272-6031
교단사무실 :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담임 목사 청빙

워싱턴 벨뷰에 소재한 벨뷰 필그림 장로 교회(PC USA)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학력-정규신학대학 및 대학원 졸업하신 분
- 경력-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3년 이상 시무하신 분(이민 목회)
- 소속 PCUSA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 이중(한국어 영어) 언어가 가능한 분
- 미국 영주권자 이상

제출서류

- 자필 이력서
- 목사안수 증명서 사본, 신학대학 졸업증명서 사본 각 1통
- 추천서 2통(목사, 장로 추천서 각 1통,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입)
- 최근 6개월 설교 2회분(동영상 파일, YouTube link)
- 신앙 고백서 1부
- 목회 비전서 1부
- 자기 소개서 (성장 과정 및 활동 내역 중심)

제출 마감일시 : 2024년 1월 31일

제출처우편 : Korean Pilgrim Presbyterian Church
6016 SE 120th Ave, Bellevue, WA 98006
e-mail : kppc.friendship@gmail.com

기타

- 제출 서류는 보안에 유의하며 청빙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는 e-mail로 하시길 바랍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한인 필그림 장로 교회 청빙위원회

이제 다시 걷기를 시작하자!



JGP 기능성 신발

최근 맨발 걷기 열풍이 방증하듯 발의 건강은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요소다. 우리 몸의 건강은 작은 부분들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발과 척추는 몸의 기동을 이루는 미묘한 연결고리다.



아무리 발 건강에 좋다고 해도 일상생활을 맨발로 할 수 없다면 발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JGP 기능성 신발은 어떨까? JGP 기능성 신발은 자연스러운 발의 움직임과 건강을 강조한다. 발이 편안하게 지지되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감소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보행 패턴을 유지하고 척추의 정렬을 돕게 된다. 결과적으로 몸 전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별히 발의 피로는 척추에 큰 영향을 미치

는데, JGP기능성 신발은 발의 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장시간 걷거나 서 있는 경우에 큰 효과를 맛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았다.

건강한 발은 건강한 척추를 뒷받침하고, 건강한 척추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선사하는 선순환을 일으킨다. JGP 기능성 신발은 발과 척추를 위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건강한 미래를 위한 파트너로 더 편안하고 건강한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JGP USA 대표 김병식: 213-330-6810
jgpshoe@gmail.com
3250 Olympic Blvd, #304 LA, CA 90006



JGP 기능성 신발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신용 회장 연임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가 9일(토)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422차, 2023년 12월 월례 조찬기도회 및 제44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연합회 이사회는 총회에서 현 신용 회장을 회칙 개정 없이 전례에 준해 한 번 더 연임하기로 결의했다. 신용 회장은 "회칙에 의해 연임까지 했으니 차기 회장이 맡는 것이 옳으나 많은 이사님들과 증경회장단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기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소감을 말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422차 조찬기도회는 신용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성준 부회장의 대표기도에 이어 한기원 목사가 "순종하기 쉽습니까?(창 12:1-3)"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뵈 때, 비로소 순종이 가능해 진다. 영광의 하나님을 뵈고 순종하면 그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개인도 교회도 연합회도 순종의 축복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1. 나라와 민족 2. 지역사회와 지역교회 3. 전세계 선교사와 선교지 4. 연합회 사역과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윤우경 이사장이 마침기도를 했다.

이사장 신영세 장로의 개회기도로 시작되던 제44차 정기총회에서 신동직 총무가 2023년도 사업을 보고했고, 신용 회장은 "올 한해는 교회연합성가제와 선교사 자녀

후원 골프대회를 주 사역으로 기획했는데, 교회연합성가제를 하지 못해 아쉽다. 2022년과 올해는 OC교계 단체가 연합해 진행한 사역들이 특히 빛났던 해"라고 말했다.

회계감사보고에서 감사 김도영 장로는 "최근 연합회가 예산면에서 크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원의 성장을 보면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것이다"고 선배로서의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연합회는 이후 행사에 대해 "21일(목) 오전 11시에 은혜한인교회에서 제4회 선교사자녀 장학금전달식 및 OC교계단체 연합송년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윤우경 이사장은 "많은 교계 단체와 기관들의 적극적 협력이 있었다. 각 단체가 올 한해 함께 협력했으니 함께 송년 모임을 갖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 1부에 장학금 전달식 2부에 교계단체 연합 송년회로 기획하게 되었다"며 교계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OC교계단체는 OC교협, OC목사회, OC여성목사회, OC장로협의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를 말한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는 OC 인근지역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함께 교계와 연합활동을 통해 기독교 가치관을 회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평신도라면 교단을 초월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전도회연합회 422차 조찬기도회 및 44차 정기총회



재활치료사
추천신발



혁신적인 의학적 공학적
디자인

JGP

는 신발이 아닌 건강증진 신체교정 도구입니다!

힘이 없는 걸음걸이가 바로 걸어지고
굽은 허리와 어깨가 활짝 펴지는
신는 즉시 느끼는
신비한 체험!



(올림픽 갤러리아 3층 푸드코트옆)
3250 Olympic Blvd, #304, Los Angeles, CA 90006
☎ (213)330-6810 📷 jgp_health_shoes | jgpshoe@gmail.com

영업 시간	월~토 : 10:00AM ~ 07:00 PM 일 : 11:00AM ~ 06:00 PM	24시간 상담환영 카톡ID: Kfour	구입, 대리점 개설 T.(213)330-6810
--------------	--	---------------------------------	---

홈쇼핑월드

연말선물 대박세일!!!

세일 기간 | 2023년 12.13(수)-12.19(화)

건강식품, 생활가전, 주방·미용·위생용품 한국산 먹거리 등 제품을 최고의 가격으로 드리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WOW 청정 남해바다 특산물 기절초풍 세일!!

전복 해물 볶음밥
250g
~~\$6.99~~
\$3.99



전복 김치 볶음밥
250g
~~\$6.99~~
\$3.99



거제 임연수
2 마리
~~\$8.99~~
\$4.99



초림단지 콩가루
90g
~~\$9.99~~
\$4.99



자연향기 명란김
12봉
~~\$9.99~~
\$5.99



자연향기 오곡 김자반
40g
~~\$4.99~~
\$9.99 5봉지



알멍게
250g
~~\$19.99~~
\$9.99



Immune-11
면역력 향상제품
60캡슐
~~\$49.00~~
\$10.00 *1인 5병 한정



완도 곱창김
160g
~~\$24.99~~
\$14.99



알갈리 죽염
280g
~~\$29.99~~
\$19.99



연말선물 특별 깜짝대박 세일!!

소백코리아 홍삼절편
10봉
~~\$54.99~~
\$24.99 *1인 3박스 한정



종근당 일품 6년근 홍삼
(30포) 1개월분
~~\$89.00~~
\$25.00



동원 침향단 공진단
30환
~~\$129.00~~
\$35.00 *1인 3박스 한정



몽크로스 헤어 드라이기
~~\$259.00~~
~~\$129.00~~
\$99.00



정관장 홍삼원 골드 60포
~~\$189.99~~
\$119.00



광동 경옥고
705g
~~\$190.99~~
\$150.00



정관장 홍삼원 골드 60포 (2개월 분)
* (1박스 구매 시 → 100% 참기름 * 1병 + 기적의 이문 11 * 1병)
* (2박스 구매 시 → 100% 참기름 * 2병 + 기적의 이문 11 * 2병)
* (3박스 구매 시 → 몽크로스 양모이볼 Q세트 + 기적의 이문 11 * 3병)

광동제약 무병장수 경옥고 705g
* (1박스 구매 시 → 100% 참기름 * 1병 + 기적의 이문 11 * 1병)
* (2박스 구매 시 → 100% 참기름 * 2병 + 기적의 이문 11 * 2병)
* (3박스 구매 시 → 몽크로스 양모이볼 Q세트 + 기적의 이문 11 * 3병)

*광고내용 중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상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매량 상황에 따라 상품의 판매 수량과 세일 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There may be a typo in the content of the advertisement, and the image of this product may be different from the actual one.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each store, the sales volume and sale price of the product may be changed and restricted.